[자료해설]

민병휘의 단막극 <고향> 해제

최상민*

<故鄕>은 1930년대 전남 목포에서 발행되던 잡지 <湖南評論>(1권5호, 1935.10, 71~79면)에 실린 閔丙徽(?~?생몰연대미상)의 단막극이다. 1926년 2월 1일『시대일보』에 「동인군의 '홀노리'를 읽고」를 발표하면서 평론활동을 시작한 민병휘는 1928년을 전후하여 연극 대중화 논쟁에 가담하면서 프로문단에 본격 등장하였다. 1931년 3월 개성에서 프로연극 단체인 대중극장(大衆劇場)의 창립을 주도하였다. 민병휘는 이 카프 개성 지부를 발판으로 삼아 카프 중앙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연극 대중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동식 소형극장 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실천하였다. 특히 그리고 이런 그의 시도는 일제의 검열과 탄압을 피해 노농 대중을 위한 연극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실천적 고민의 표출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곳의 제1회 공연작품으로 「젊은이들 , 「마리아와 아들」, 「마도로스와 웨트레스」 등을 직접 썼다. 그해 7월에는 노동자 농민 대중잡지를 표방한 카프의 기관지 '군기(軍旗)'를 창간하는 데 적극 개입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2차 방향전환 이후 카프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그는 이기영, 최서해, 김영팔, 최승일, 조명희, 송영 등의 작품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작품이 "모다 프로레타리아 해방을

www.kci.go.kr

*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위한 운동이 되지 못하고 福本이씀(복본주의)에 사로잡힌"나머지 프로 연극적 실천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를 드러낸다고 비난한다.[1] 그가 지적한 것은 '아지프로'(agitation propaganda)를 위한 대중적 연극실천에 있어서 당시 카프 중앙의 주도그룹들이 갖고 있던 문제의 핵심이 비대중성에 있다는 점이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카프 연극부는 인텔리적인 경향성의 문제, 비효율적 조직운영의 문제, 연극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부재의 문제, 중앙과 지방의 프로극단을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력 부재의 문제 등을 안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제안한 것은 노동자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 농민들 속에서 상연되어 그들을 계급전선으로 진출케 할 효과를 주는 것"[2]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민병휘는 이런 논쟁을 통해 연극 대중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동식 소형극장 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박영희와의 논쟁에선 朴氏의 푸로劇觀과 泡影씨의 '깨어진 거울'」(1931)을 통해 박의 견해를 '反動的'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眞正한 프로演劇은 勞動者 農民 속에서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다.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演劇漫畵」(1931)에서는 화살을 카프 중앙 간부들의 '文士的 氣質'에 대한 비판으로 돌리고, 그 기세를 이어서 이른바 '軍旗 事件'을 촉발시키면서 카프 중앙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카프로부터 제명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후 그는 작품론과 작가론에 많은 관심을 쏟았으며, 번역극 문제를 둘러싸고 극예술연구회의 김광섭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의 주요 평론으로는 朝鮮 프로藝術運動의 過去와 現在」(1930), 「藝術의 大衆化 問題」(1930), 「演劇批判에 對한 態度」(1931), 「外國劇의 移入으로만 朝鮮의 劇文化는 樹立될 것인가?」(1933), 演劇漫畵」(1931), 「朴英熙論 (1933), 「金基鎭論」(1934), 「民村 '故鄕'論」(1937) 등이 있다. 이런 그의 글들은 제목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논쟁적

1) 민병휘, 「朝鮮프로藝術運動의 過去와 現在」, 『대조』5, 1930.8.
2) 이대범, 「민병휘 연극 비평 연구」,『어문연구』33권4호, 2005, 227면.

www.kci.go.kr

인 담론투쟁에 적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그의 논쟁은 개성을 거점으로 한 지방 문예활동가의 입장에서 중앙의 문단, 예술계에 대한 극히 논쟁적인 방식의 문제제기였다.

극작품 <故鄕>은 이 시기 그의 이런 연극관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우선 <고향>은 기본적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극이다. 작품은 기본적으로 대개의 아지프로적인 성격의 작품들이 그렇듯 특별한 플롯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처한 현실상황이 드러나며 이런 상황 속에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주장을 말함으로써 갈등을 반복하고, 일방이 이를 포기하거나 방기함으로써 극적 갈등의 해결없이 봉합되는 결말을 보여준다.

작품 속의 무대는 남쪽 조선의 어떤 시골이다. 농부인 주인공 준철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큰아드님은변호사겠다 작은분은 학교교사"라며 부러워할 만큼 자식들을 잘 키웠다. 그러나 준철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 큰자식놈이라야 기껏대학이라고 마치여놨드니-제일먼저 계집년은쫓고 천원이나들여 여학생년에게 장가를들고 변호산지 무엇인지한다고-오촌하고 재판질이나해서 집안간에 불목이나하게하고 작은놈은 학교교사노릇을함네하고-계집이싫으니 어쩌니하고 돈이라고 한푼보내기커녕 오히려 가져가는때가많치!"라는 게 그의 속마음이다. 그 뿐 아니다. 준철은 이런 자식들이 "자기를 먹여살리고기르고가르친 고향을 쓴외돌아보듯"하는 태도가 싫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시골의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率家하여 살자는 것이다. 그들이 사흘째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이시골구석에서 땅두더지처럼 밤낮땅이나파는게" 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자신들만 서울에서 호화롭고 평안히 지내면 世評이 안 좋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물론 준철이 서울로 아들들을 따라나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겹 벗겨 보면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都農 葛藤을 전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도농갈등의 전면화를 통하여 작가는

기본적으로 '중심(제국, 경성, 부자, 지식, 수탈자…)/주변(식민지, 농촌, 빈자, 무식, 피수탈자…)'의 대립상황을 환유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담론 실천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한 서사적 전개없이 극적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입장을 확인하며 독자/관객의 판단을 요구하는 극의 이 같은 극적 전략은 다음과 같은 대사에서 잘 드러난다.

準喆 고약한년놈들 가렴으냐! 이땅에서 난돈을들여서싫것가르켜놓고보니 그땅이싫여 그녀석들은 가고마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이땅에놈들이 모다배고보면 이땅을 지킬녀석은그 누구란말이냐(흥분에떤다)

(중략)

準喆 (생략)…인제는 속절없는 꿈이 되고 말었다. 그 때 너희들이 공부를마치면 이고향에서 큰일을하야이 늙은아비의 자랑거리가될 것을 얼마나기뻐했는지아느냐? 그러나 (울면서)너희들을 공부시키고길러준 이은인인고향을떠나서 그뒤숭숭한서울로만 가려고하는구나!(팔소매로눈물을훔치면서) 오냐! 세상이 그런가보드라! 어서가서잘있거라. 나는저불상한남편없는 너희누이와 아비없는 너희들의 족하자식을다리고 이감밭을지키고살겠다. 그리다가죽으면 이땅에묻히겠다…(하략)

식민지의 문화는 중심에 대한 '저항'과 중심에의 '종속'이 마주치는 장이다. 이 때, 식민지의 민중들과 지식인들이 위대한 각성을 통해 탈식민의 저항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모습일 터이다. 하지만 중심(제국, 경성, 부, …)의 파워엘리트들은 그 행위가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중심과 동맹의 관계를 형성하여 주변부로 전락한 주변부의 식민지 민중을 착취하며 중심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코드와 상징을 주입, 세뇌시키는 것이다. 이에 종속적인 경향의 문학은 물론이고

www.kci.go.kr

저항적인 문학과 예술에서조차 중심국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코드와 상징, 글쓰기 방식은 강한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민병휘가 저항한 글쓰기, 혹은 문학/연극은 바로 이런 중심부의 파워엘리트층이 담지하고 있던 사이비 민중성에 대한 저항의 환유로 읽어야 한다. 준철의 성공한 아들들이 아무리 '자식된 도리'를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건강한 민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이 중심에로 이동한 이후에 보여주었던 행태에서 증명된다. 그들은 근대 공권력의 상징기제인 재판을 통하여 중심의 논리에 익숙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부정하던 피붙이의 땅을 빼앗았으며, 나아가 그런 방식의 권력 사용을 통하여 얻어진 부(힘)를 개인의 영화로운 삶을 위하거나 향락적인 데(예컨대, 첩실을 들이거나, 노름에 탕진하거나, 피아노 따위를 사들이는 데)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변부의 피와 땀의 결실로 얻은 근대지식이나 의장은 그들의 그것을 낳게 한 주변부의 맨살('새양목두루마기를 입고 갔을재켜쓰고 커다란고무신을끌고' 따위의)을 노출하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마저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익순은 함께 기차에 오른 아버지와 멀찍이 떨어져 앉아 다른 양복장이 엘리트와 앉아서 조선말보다 일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방식의 인식과 태도는 당대 중심부 엘리트 계층에 대한 강한 부정과 함께 이른바 카프 안에서조차도 말뿐인[3] 대중성이니 계급성이니 하는 담론에 대한 부정과 저항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작가의 지향점은 '이 땅'을 지킬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배워 이 땅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익순과 그의 형제들처럼 오히려 그들을 키운 '이 땅'을 부정하고 나아가 '이 땅'을 침탈하려는 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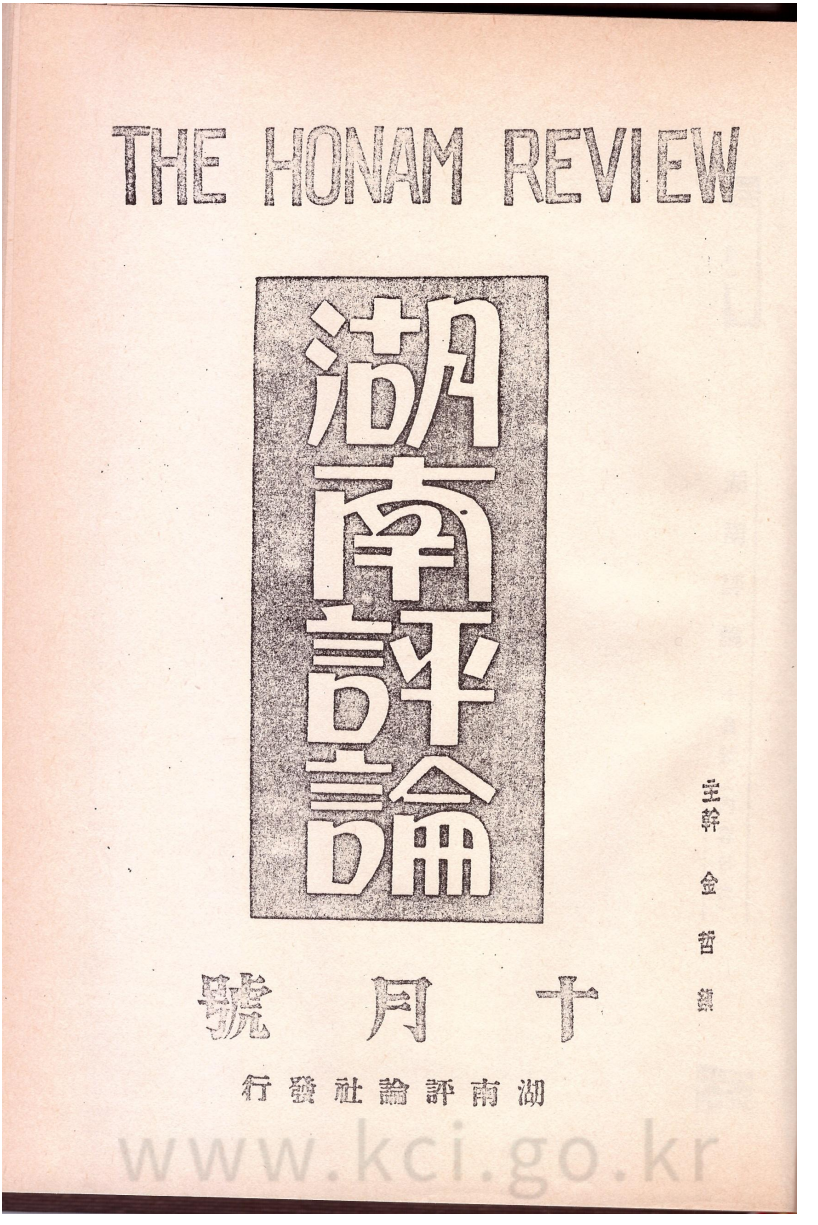
3) 실제로 그는 자신의 연극론에서 식민지 대중의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그들을 중심에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프로연극이 대중성을 몰이해하여 '부르조아에 의해 부르조아 극장에서 부르조아 대중을 상대로 공연'하는 따위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관해서는 민병휘, 「朝鮮프로藝術運動의 過去와 現在」, 『大潮』 1권5호, 1930.8을 참고할 것.

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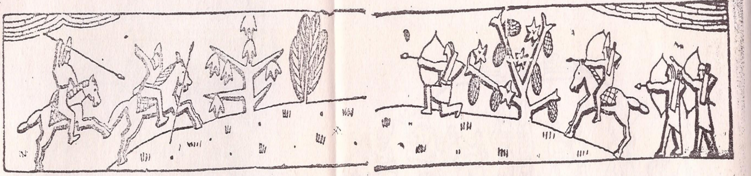
따라서 <고향>이라는 텍스트가 보여주는 미적 특징을 지적함에 있어서 "계급성이나 이데올로기적 관념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술성을 사장시키고 정치성을 드러냈다"[4]는 식의 선험적 평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대의 위선에 맞서 '중심 대 주변'이라는 담론 실천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문학적 효과라 할 만한 갈등구도의 환유효과를 주목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런 방식의 환유적 장치들이 농민을 상대로 하거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공연에서 인식적이며 암묵적 공감을 이끌어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을 과도한 지적이라고 폄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www.kci.go.kr

4) 김성희, 「한국프로희곡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1988, 47면.



www.kci.go.kr



湖南評論 十月號 (內容目次)

卷頭言……金哲鎭…(7)

時事問題

에치오피아黑人帝國……徐水聲…(8)
歐洲政局危機……羅海星…(16)
中國政界의人物과問題……竹洞人…(19)
淸俱組織과事業의細論……朴燦一…(28)
海苔組合解消問題……曺克煥…(34)
木浦蹴球向上을論함……MS生…(26)
湖南少年少女雄辯大會……朴花城…(24)
基督敎의起源勃興及分派……金哲鎭…(39)
事物의一面觀……金哲鎭…(31)
口腔衛生에對하야……盧基燮…(46)
飮酒哲學……鐵彰生…(49)
蘇東波兄妹의詩問答……CK生…(52)

衆口難防……S生…(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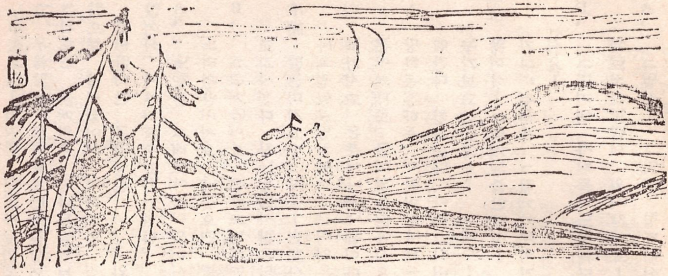
偶感愚感……DK生…(53)
白羊寺를찾어서……金極洙…(55)
庭園의小鳥……港人…(57)
旅情數題……DK生…(60)
술노래……竹洞學人…(60)
望鄕……羅千洙…(61)
兒과누나에게……李根華…(61)

海外文藝

沐浴하는女子……휘잇쉐…(62)
그女子의愛人……끄르기…(65)

戱曲

沈淸傳……羅萬成…(80)
故鄕……閔丙徽…(71)



戲曲

故鄕

(三幕)

閔丙徽

趙準喆 (시골農夫) 六十歲
趙益淳 (準喆의長子 辯護士) 三十六歲
趙益謨 (準喆의次子 敎員) 二十七歲
趙順子 (準喆의長女)妻婦 四十歲
趙奉子 (準喆의次女) 十九歲
淑 姬 (順子의딸) 九 歲
洞里늙은 農夫 A、B

때 現代 첫가을

곧 南쪽 朝鮮의 어떤시골 조고마한정거장가차운 감나무많은洞里

舞臺 막이열리면 上手로 멀리 청석기와집이보이고

www.kci.go.kr

中央으로ㅣ어여쁜 반송나무가있는데 그아래는우물이있고 우물앞에 널쪽으로만든걸상이 두개놓여있다。그리고 그뒤로는 붉게익은 감나무밭이보이고 下手로부터 우물앞으로 길이있어서 청석기와 집있는곳까지가게되었다。 幕이열리면 동리영감 A、B와準喆 우물앞걸상에마주앉어서 이야기를주고받고한다。

A、 노형은 그래도아들이있어서 쉬울도모셔가는데 웨 그리성만내시요ㅣ나같으면 좋와라하고 따러가겠소。

B、 그리게말이요 큰아드님은변호사겠다 작은분은 학교교사겠다 참노형팔자같은팔자가 어디있소。다만 準喆 맡들마시요! 쉬울ㅣ변호사! 선생! 그놈에것이 나의집안을망치겠소 큰녀석은지금변호사이니 무어니 해가지고 돈푼이나버나봅디다만은ㅣ 그랗게 해서번 돈이제다로 굳어있을줄아시요ㅣ 그커됴어놓고ㅣ남은 망하든흥하든 재판질이나해서 돈이나따먹고ㅣ기생집 엘간다 첩을둔다 이리고지내니 그아니꼬운꼴딱지를 누가보고산단말요! 그래도ㅣ그녀석은 자기의재조가 많어서ㅣ그렇게된줄만알지! 하하하!기막힙니다。내가그녀석들을 그렇게가르치기에 얼마나 힘이든줄아시요!

B、 그러기에 자제들이노형을모시라 오지않었소ㅣ힘써 가르치신보람이 있지않어요!

A、 그렇지ㅣ 그맛에 힘드려서자식을가르치지 어쨌든 노형은 상팔삽니다。우리들은 글력이없어서 자식을 가르치지못한까닭으로 그키이모양이지?

準喆 상팔자! 그까짓팔사나운놈들에게가서 밥술이나얻어먹게되면 상팔자란말요ㅣ하하 남의집속사정은 아지도못하고 노형네들은 상팔자이니 무어니합닌다。

B、 무엇이 그리속이상하시단말요ㅣ그래도 이동리에서 재산으로보든지 문벌이나 자제들의자격을보든지 무엇무고리울게 하나나있소ㅣ그키마나님이 너무일즉돌아가신것이 한될뿐이지

準喆 기막히는 소리마오!자식놈들 그래큰자식놈이라야 기껏더학이라고 마치여놨드니ㅣ케일먼커 게집년은쫓고 천원이나들여 여학생년에게 장가를들고 변호산지 무엇인지한다고ㅣ오촌하고 재판질이나해서 집안간에 불목이나하게하고 작은놈은 학교교사노릇을함네하고ㅣ게집이싫으니 어쩌니하고 시골은일년가야한번ㅣ오거나 말거나하고! 돈이라고 한푼보내기커녕 오히려가져가는때가많치! 그리고작은딸년도 내년에는 전문학교에를 가느니어쩌느니하고서들어대니 인제는나도늙고 어찌할도리가 없단말요。

A、 그래도자제가 모시라운걸 아니가시면되겠소。

準喆 안가요 나는내가낳고자라났으며 그래도 성가한 이곳에서 살다가늙어 죽어이곳에묻칠터이요ㅣ 쉬울ㅣ 말도마오……

www.kci.go.kr

B、 언제가보섰든가요!

準喆 가기야 가끔갔지요! 만은참꼬락신이 사나워서 (속상하 는듯이 침을뱉았는다)

A、 웨요! 어떠트란말이요! 서울은! 형길로도! 철로 가다니! 청거장이 땅속에있다든데 그런좋은구경을 하시고 뭐속이상한단말요!

準喆 (웃으며) 컨차니자동차니 들끓고다니는 그놈의속에서 디숭숭해서 살수도없겠지만 그보다더 괄악신이 보기싫은게많다우!

A、 ……

B、 (準喆을붙든)

準喆 거언젠가! 큰녀석이와서 가자고만하니깐 따러가지 않었겠소? 내속이상해서! 오래됀! 새양목두루막이를입고 갔을재켜쓰고 커다란고무신을끌고 나서지않었겠소? 무엇그것아니고! 입을게있소 신을게있소! 그랬더니! 제딴엔아주창피했든모양이야 그래차를타고도 딴자리에앉어서 같이가는양복쟁이와 뭐라고 일본말로짓거리겠지! 나는남같이 멀리앉쳐놓고 그래공연히나섰구나하는 노여움이생겼구려 그러나 억지로참고 그녀석이시키는대로 차에서나려서는 자동차를타고 변호사인지뭔지한다고 매달어논 커단패불은 집으로들어가니깐 앗다천원이나 들여서 얼은우리새며느님보시요 커다란 귀짝같은것을앞에놓고 두다리면서 무어라고 소리만지르겠지! 그나그뿐인가? 아침에는 한나절이나 겨우일어나고 세수는방에서하고! 내! 어쩌골이보기싫은지 그날밤차로오고말었지!

B、 그덕짝같은것은 뭐란말이여!

準喆 몰라! 양금인가! 뭔가! 그리는데 그것도 이천원을 주고샀다나! 내원어쳐구니가없어서

A、 작은자켜는 어떤개하고사는지 건보지않으시고오섰소?

準喆 그말은 또다해뭘하겠소! 금년봄에 게집애가자꾸 졸려대니깐 또! 그놈의가기싫은델 따라가지않었겠소 그래이번에는! 그신식며느님이 보기싫으니깐! 그작은놈의집으로갔지! 그랬더니 학교만파하면! 게집년들이 소똥머리를하고와서 화토를하고 웃고야단이겠지 그녀석이 그맛에집에있는 게집이싫다는게야! 이렇게되고보니 우리집이망하지않겠소 자식이라고 땅을파서 힘껏가르쳐놓고보니모! 다 요모양이구! 자기를 먹이여살리기길르고가르친 이「고향」을 쓰외돌아보듯하는구료!

A、 그래! 신식아이들은 그것이험이야!

B、 애껏힘써서 가르쳐놓으니깐! 모다! 그분이구료!

난 변호사라면 큰벼슬인줄알었드니!

準喆 벼슬이무슨벼슬야 도적놈이지! 오촌하고도 웨재파질을한줄아우?

www.kci.go.kr

B、 그건무슨일로ㅣ그랬단말요

準喆 그런에냐가 그사촌하고 산땅이열댓마지기 있어따오ㅣ그런데 그게아직 명문이나지않고 그애가붙이여먹었단말이야ㅣ그래서 그더로 나도내버려두웠지ㅣ그까짓것을가지고 내것이니 네것이니 할게뭐있겠소。사촌끼리 그랬더니만 이녀석이 변호사허가가나오자돈을데가있는데 나에게청하야 주지않고허니깐ㅣ줄돈도 인케는없소만은 그만재판을거렸단말이야ㅣ그래서 그것으로 겨우먹고사는 그사촌네해를빼서팔아먹어서 사촌네와 우리가 불목으로 지내지않소! 이렇게되고야 자식놈을가르칠시러배 놈이 어디있겠소ㅣ그런데이녀석이 또무슨흉계를꾸미려는지ㅣ이곳에것을 다팔고 서울로만가자고하는구료!

A、 그렇게ㅣ마음이좋지않었든가?

準喆 범죽이니뭐니 하는놈들은 눈깔에돈밖에 아무것도 안보이는가봅디다 우리는땅을파고 땀을 흘려서만든 돈이라 그것을좀소중하게여기오ㅣ그렇지만 그녀석들은 뱃다는재조로 가만히앉어서 그렇게돈이 막생기니깐 막을여내서 먹는단말이지ㅣ남의원통한것도 돌보지않고 그러돈만끔어다가 막우겨바린단말야ㅣ

——(淑姬학교에서돌아온다)

淑姬 (반소나무아래로와서면서) 할아버지웨거기 게서요

準喆 오냐? 학교에서오니?

淑姬 네。!

(A、B、일어나면서「인케는갑시다」하고 B를보니깐 따라일어서 두사람은보내고)

(두사람은보내고)

準喆 淑姬야! 아저씨들왔니?

淑姬 저! 작은아저씨는 정거장앞에서술먹고 큰아저씨는못봤어요ㅣ그런데할아버지…엄마집에있수?

準喆 오냐! 안에있으라 가서ㅣ밥달래먹어라 인케는술까지잡숫는구나!(일어선다)

淑姬 (準喆의손을잡아끌면서) 할아버지도가요!

準喆 오냐! 가자! (淑姬의손목을잡고 서서히 上手로나아간다)

——사회——

(益淳 春子와같이 下手로登場ㅣ우물 앞길결상에마조앉는다)

益淳 아무래도 아버지를모시고 갈수는없을것같다ㅣ

春子 그래요ㅣ그러면집을 공연히사놨지!

益淳 그것이야 도로팔어치기라도하겠지만 도모지 이번상경하는데 아버지는웨그렇게 반대를하시는지모르겠다。

春子 아무래도 오랫동안살으시든 고향이떠나시기가 싫으셔서 그리시겠지요!

益淳 지금늙으신분으로 농사도지실수없고ㅣ우리만 또이

www.kci.go.kr